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한 소고¹⁾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I. 들어가는 글

선교사들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구비하여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유지시키며 탄력적으로 양육하므로 선교현장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이다. 좋은 멤버케어는 좋은 선교를 하게 만들며, 선교사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와 지상대위임령을 실천 하는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한국교회가 파송한 24,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케어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1) 본 논문은 2012년 8월 25일 남대문교회에서 열린 한국선교신학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분야의 놀라운 성과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멤버케어와 연관해서는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교회의 성장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접근은 성과 지향적이고 프로젝트 중심적이며 (건물 중심적) 경쟁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기질과 부합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들을 지닌 한국교회와 선교는 어떤 큰일(?)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아 자신의 세력(교파주의적 선교)을 넓히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었는데 대한 평가기준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인 결과로 인한 교회의 크기와 숫자이다. 노동과 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결핍은 창조의 백미인 하나님의 안식(쉬)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 사회와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 가운데 하나인 놀라운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기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의 추구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 없이 달러가는 폭주 기관차로 만들었고,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성장침체와 대사회적인 공신력 하락, 그리고 청렴성과 정직성의 부재는 교회와 선교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교사들에게 안식년이란 또 다른 피곤한 사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국으로 돌아와 쉬와 회복과 재충전의 기간을 갖기보다는 재입국으로 인한 충격과 거주문제, 자녀교육문제, 모금 등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탈진에서 회복될 겨를도 없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안식년의 형태는 새로운 “본국사역”(home assignment)이라는 용어를 낳았다. 현지 사역에서 본국사역으로 이어지는 사역의 연속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쉬를 통한 재충전과 회복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파송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일과 삶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연관되며,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교회의 잘못된 이해와 기대에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현 한국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인식의 중심에는 생존모드(survival mode)가 자리 잡고 있다. 선교사의 삶은 희생과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교회가 선교를 통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경쟁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선교사들은 교회라는 제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견해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선교사, 파송기관/후원교회, 선교지/현지교회이다. 만일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정의한다면,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며 긍휼의 발로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가 총체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예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생존하려는 한국선교사들의 경쟁적 마인드, 성과위주의 전략, 실용주의적 접근 등은 하나님의 선교와는 동떨어진 자기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인간적 선교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원은 사람이며 그들의 성장과 전인적 건강은 선교사역의 올바른 성취를 위해 필수적이다. 선교사 멤버케어 운동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²⁾ 특히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심이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구속적 통치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한”(integrity) 삶과 사역을 기대

2) 글로벌 멤버케어 운동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최형근,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제28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과 Laura Mae Gardner, “Missionary Care and Counseling: A Brief History and Challenge” In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John R. Power and Joyce M. Bowers eds., (Palmer Lake, CO: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2002)을 참조하라.

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어 지친 모습으로 선교사역을 감당 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드러낸다면,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선교사 멤버케어의 정의와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교사 멤버케어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선교사 멤버케어의 요소들과 모델을 제시하고,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협력적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멤버케어의 정의와 성서적, 신학적 근거

현재 글로벌 선교사역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멤버케어”(member care)라는 용어는 다소 어색하고 불분명한 성격을 지니고 떠고 있다. 그 이유는, “멤버”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경직성이나 확실성 때문이다. 멤버라는 용어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혹은 클럽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선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제자직과 소명에 근거한 것이고 교회의 선교사역의 핵심적인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나 클럽의 구성원과는 차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어는 돌봄, 치유, 회복, 관리, 관심, 배려, 양육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멤버는 선교사, 선교사 자녀, 선교 행정가를 포함하여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들을 지칭한다. 멤버케어는 파송교회, 선교단체, 동료 사역자, 멤버케어 전문가 모두의 책임이다.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은 멤버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멤버케어는 선교인력의 양육(복지)과 발전을 위한 선교기관과 교회, 선교단체에 의한 지속적 자원 투자이다. 멤버케어는 선교와 관련된 모든 인력들(선교사, 지원 스태프, 자녀, 가족)에 초점을 두며, 선교사

선발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의 삶의 전 과정을 다룬다.³⁾

로라 매 가드너(Laura Mae Gardner)의 멤버케어의 정의는 켈리 오도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선교사들의 전인적 건강과 관련하여 선교지의 필요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본질적인 신학적 전제를 표현하고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란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서, 선교사들이 그들의 파송기관과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파송교회의 후원을 받아 확실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식의 범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돌봄의 최종 목적은 이 돌봄이 끝났을 때, 각 선교사가 왕성하게 사역에 임하게 되고 선교지의 필요들을 역동적으로 채워 줄 수 있으며 그의 가족을 잘 돌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⁴⁾

하트스트림은 한국적 상황에서 멤버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멤버케어란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고자 동원된 선교인력에 대한 총체적 돌봄과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다. 멤버케어의 최상의 실천은 구성원의 주체적 자기 돌봄과 조직의 체계적, 전략적 돌봄과 책임(Accountability)이 상호 관계적으로 교환될 때 가능하다.” 멤버케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기 돌봄, 그리고 상호간의 돌봄에 대한 성서적 근거 위에서 규정된다. 가드너는 멤버케어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근거(멤버케어의 철학)를 5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돌보신다. 둘째, 선교사들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줄 책임이 있다. 셋째, 파송교회도 멤버케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넷째, 선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가족을 돌볼 책임을 갖고 있다. 다섯째, 선교 지도자들과 책임자들도 소속 선교사들을 돌볼

3) 켈리 오도넬, “세상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29.

4) 로라 매 가드너,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연구』, 제62호, 2009, 16.

책임을 갖고 있다.⁵⁾

켈리 오도넬은 멤버케어의 성경적 근거를 “서로 사랑하라”(요 13:14-35), “서로 짐을 지라”(갈 6:2)와 같은 신약성경의 “서로”라는 구절에 그 기원을 둔다고 주장한다.⁶⁾ 또한 데이비드 폴락(David Pollock)은 지상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한다.⁷⁾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요일 4:10). “서로”라는 용어는 “관계”를 의미하며, 관계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재된 속성이며, 그로부터 모든 관계들이 흘러나온다. 따라서 멤버케어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관점에서 조명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으로 인해 관계의 회복을 이루며(창 3:9, 12:1-3),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미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약속하신다(요 20:20-22). 선교사로의 부르심(calling)과 보내심(sending)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즉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목양과 인도하심을 전제하고 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 과정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세우시며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선교사 멤버케어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돌봄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엡 3:16).⁸⁾

5) Ibid., 17-8.

6) 켈리 오도넬, “세상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28.

7) 데이비드 폴락, “멤버케어의 흐름과 케어 제공자의 개발,”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63-64.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유기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장 모드를 추구하는 멤버케어는 훈련과 준비, 적응, 양육, 성장, 은사 개발, 공동체적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 됨, 나눔, 위로, 연합 등과 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공유하는 가족(*oikos*)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심리학과 일반 상담학이 상처받은 개인에게 치료적 접근을 통해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고무하는 것과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세속적 사회집단이 인간을 개별화하고 상대화시키며 효율적인 존재가 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 멤버케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organism)라는 성서적 근거와 교회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는 유기체적 양육 관계를 뜻한다.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생존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교사 또한 선교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양육과 개발을 추구하는 ‘발전이나 성장 모드’⁹⁾로 혁신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향하여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와 같이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생명을 이루는 것이며, 그들의 헌신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전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8) 최형근,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98-100.

9) Lois A. Dodds & Larry Dodds, *Caring for People in Missions: Optimal Care for the Long Haul*, Paper Presented at IFMA/EFM Personnel Conference, FL, Dec 4-6, 1997; Lois A. Dodds & Larry Dodds, "Intensive Care Community: Moving Beyond Surviving to Thriving,"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John R. Powell and Joyce M. Bowers eds., (Palmer Lake, CO: Missional Training International, 2002) 참조

선교사 멤버케어의 다양한 흐름(flow)들과 연관하여, 케어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 지탱되지만, 실제적으로 케어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 따라서 멤버케어의 신학적 근거는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돌봄이다.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서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실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정점을 이루며, 그 고난은 미래의 소망으로 귀결된다. 선교사역을 고난과 박해와 희생과 순교로 보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조망해야만 한다. 즉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고후 1:3-10)은 성경의 핵심이다.

III. 멤버케어의 필요성

브람 빌름(Braam Willemse)과 마리나 프린스(Marina Prins)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지인 멤버케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돌봄이 없이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낭비라고 주장한다.¹⁰⁾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선교사들의 성장과 양육,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가정과 사역, 관계와 계발과 양육보다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물, 프로젝트, 가시적인 결과물들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 왔다. 197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지 30년이 넘었다. 그

10) 브람 빌름, 마리나 프린스, 『선교사와 사역자를 위한 멤버 케어』, 이순임 역,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10), 34-35.

당시 30세 초반에 파송된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기에 접어들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귀국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인식과 사역자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인식은 리더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이고 경쟁적이며, 실용주의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중요시하며 외적인 대형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더니즘이 낳은 세계관적 요소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부정적 특성들과 융합되어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손상을 입혀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선교사들의 열정과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의 열심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성경의 나타나는 많은 열정적인 사역자들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과 우울증으로 인해 영적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¹⁾

선교인력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은 선교사 중도탈락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부상되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 선교위원회(WEA Missions Commission)는 두 번에 걸친 선교사 중도탈락(missionary attrition)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ReMAP I and II)를 통해 선교사 중도탈락과 멤버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MAP I는 선교단체들의 멤버케어에 대한 빈약한 투자가 높은 선교사 중도탈락율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멤버케어의 중요성을 확증한다.¹²⁾ 또한 문상철도 2006년 실시한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실시한 한국선교 전반에 관한 리서치 결과에서 한국교회 선교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선교사 케어(25.0%)를 지도자 양성(21.4%), 선교사 훈련(16.1%), 연구개발(18.8%), MK 교육(9.8%), 후원기반 확충(8.9%)보다 더 중요하게

11)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의 모습은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다윗, 바울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2) Roy Hay et al, *Worth Keeping: Global perspective on Best Practice in Missionary Reten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7), 183.

꼭고 있다. 선교사 케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케어의 필요성(44.9%)이 동료 선교사, 본부, 후원 교회에 의한 케어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고충이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적은 상담가, 정신의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선교를 위해 동원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를 말해 준다.¹³⁾ 이러한 리서치 결과는 한국교회가 풍부한 선교 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한국선교가 선교사 관리에 있어서 보냄은 있으나 돌봄(care)이 결여된 ‘생존 모드’(survival mode)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멤버케어의 최상의 실천모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주님의 케어”(Master Care)는 영적 훈련인 예배와 믿음과 신뢰에 관한 것이다. 이 요소는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따라서 타문화권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멤버케어의 중추적인 버팀목은 “자기 케어”(Self Care)와 “상호 케어”(Mutual Care)이다. 자기 케어는 자기인식과 필요에 대한 민감성, 인간 발달적인 차원에 대한 깊은 이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성숙한 자세를 포함하여 선교사의 전인적 건강의 기본적인 요소이다(답전 4:16). 상호 케어는 “건강한 관계”에서 나온다(요 13:14, 34; 롬 15:5; 갈 6:2; 벧전 4:10). 선교사는 가족과 동료 선교사와 현지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선교사가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비형식적인 케어와 후원을 받을 때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과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선교사들이 피송 전 훈련을 마치고 선교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13) 문상철 편, “한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동향과 과제,” 『한국선교핸드북 2007-2008 CD』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07) 참조.

영적으로 강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타문화권 선교현장이 주는 압력과 예기치 못했던 우발적인 사건들은 선교사들의 영적 상태를 침체하게 만들며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뿐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의 케어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필자가 선교사 케어에 대해 선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선교사 자신들은 기도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홀로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담이나 디브리핑 등 전문가들에 의한 케어에 대해서도 매우 미미한 인식을 갖고 있다. 즉 한국문화에 내포된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전문적인 케어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파송자 케어(Sender Care)는 선교사 선발과 은퇴까지의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에 의해서 조정되는 구체적인 후원적 차원의 케어를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후원교회와 선교단체가 효과적인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면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구조는 주로 파송구조이며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교인력을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회가 재입국선교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분야는 대개 개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개인들이 구비하고 있는 소규모 선교사 안식관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정도이다. 재입국 선교사들을 위한 구조화된 디브리핑과 전문가 케어(Specialist Care)는 소수의 기관¹⁴⁾을 통해서 제공될 뿐이고 더욱이

14) 실제로 선교사 멤버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이랜드 클리닉에서 선교사 케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샘 안양병원 선교지원센터 소장인 손은섭 선생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MCN(Member Care Network)으로서 선교인력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상담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

전문적인 디브리핑과 케어에 대한 파송교회나 선교사 자신의 인식도도 매우 낮다. 현재 선교단체들이 전문적인 선교사 멤버케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IV. 하트스트림¹⁵⁾ 케어 모델: 공동체를 통한 집중케어

모세(민 11:4-17), 엘리야(왕상 19:1-21), 다윗(시 40편, 42편), 예레미야렘 20:7-18), 바울(고후 1:3-10)의 탈진과 영적침체, 그리고 하나님 의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실재는,

계선교협의회 산하단체인 한국선교 상담지원센터(Member Care Center)는 선교사들의 심리검사와 상담, 그리고 선교사 케어를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케어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멤버케어 프로그램으로는 GMF 산하의 GBT 멤버케어 부서와 MKNest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케어가 있고, 이랜드 아시안 미션의 쉼과 회복(Rest and Restoration)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필자가 미국 하트스트림, 뉴질랜드 하트스트림, 필리핀 하트스트림과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사들을 돌보는 2009년에 설립된 하트스트림 코리아(Heartstream Korea)와 가 있다. 또한 2011년에 설립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 멤버케어 센터가 있다. 이 외에 GLF(Global Leadership Focus)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디브리핑 세미나와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 15) 하트스트림(Heartstream Resources for Cross-Cultural Workers)은 1992년 로이스 다즈(Lois Dodds)와 그의 남편인 래리 다즈(Larry Dodds)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하트스트림을 통해 선교인력에 대한 멤버케어 사역을 하고 있다. 하트스트림 한국센터는 2009년 필자와 필자의 아내(엄은정)에 의해 설립되어 해외의 하트스트림 센터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협력하며 한국선교인력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http://hsrkorea.or.kr> 참조).

그들이 직면하는 고난과 박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 확산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입국을 제한하며, 복음전파를 금지하고 나아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과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교사는 영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소명감과 영성으로 철저히 무장한 선교사들이라 할지라도 타문화권에서의 열악한 삶과 사역의 실재는 선교사 중도탈락률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라는 용어는 자칫 심리학적/상담적 차원으로 국한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인력에 대한 적절한 케어는 상호의존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양육과 발전 중심의 성장모드를 필요로 한다. 하트스트림은 인간발달의 5개의 차원들인 영적(Spiritual), 신체적(Physical), 실현적(Actualization), 관계적(Relational), 감정적(Emotional) 케어를 중심으로 멤버케어를 제시한다.¹⁶⁾ 그리고 부가하여 6번째 차원은 조직적 케어이다. 즉 이 차원은 전문적인 멤버케어 센터와 선교사 개인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멤버케어 전문단체는 선교인력들에게 케어를 위한 인력한 환경(비밀이 보장된 공동체)과 시스템을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한 케어의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사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선교사의 회복과 치유에 영향을 미치듯이 전문 선교사 케어센터는 선교사 케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영적 케어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실재와 원리와 가치이지만,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 선교사들은

16) Lois and Larry Dodds, "Caring for People in Missions: Just Surviving or Thriving? Optimal Care for the Long Haul," Presented in IFMA/EFMA Personal Conference, *Unpublished Paper* (Liverpool, PA: Heartstream Resources, 1997); Lois Dodds & Laura Mae Gardner,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 (Vol. 2) (Liverpool, PA: Heartstream Resources, 2011), 255. 하트스트림의 멤버케어의 핵심요소들은 SPARE Yourself로 대표된다.

영적인 면에서 매우 잘 구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본국의 신앙공동체와 격리된 외로운 선교지에서 홀로 자신의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선교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영적 케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영적전쟁이 실제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영적 준비와 지속적인 케어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피송 전 훈련과정에서 영적 전쟁과 영적 침체에 대한 훈련과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피송 후 선교현장에서도 목회적 케어는 필수적이다! 특히 선교사 멤버케어의 흐름 가운데 자기 케어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최소한의 단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상호 케어는 영적케어를 위한 증추적인 버팀목이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의 관계갈등은 상호간의 케어를 악화시키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 영적 고갈과 탈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교사들의 활력을 빼앗아 가고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둘째, 선교사들에게 신체적 케어는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분야이다. “생존과 희생모드”를 통해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유지를 위한 시간과 여력을 투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이 병들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이나 자랑으로 여기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감정적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본국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몇 배에 이른다.¹⁷⁾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신 신체적(psychosomatic) 질병을 유발하며, 심각한 신체적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즉 신체적 질병은 다른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1970년대 말 한국선교사들이

17) Holmes-Rahe Scale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정상시의 5-6배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Cf. Lois Dodds & Laura Mae Gardner,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Vol. 2), 162-163.

본격적으로 파송된 지 40년을 넘어선 지금, 선교사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 케어는 의료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케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제로 선교사 선발(selection)과 선별(screening), 그리고 파송 전 훈련(pre-field training)을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선교사 후보생들의 건강 검진(health screening)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은 신체적인 분야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분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교사 훈련 기간뿐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겪게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탄력성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신체적 케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과 우발적 사건을 대비하는 확실한 국제적 의료보험이나 메디컬 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며, 우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위기관리 대응 팀이 조직되어야만 한다. 한국교회에는 선교사들을 신체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 구비되어 있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병원들이 있으나, 실제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실행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셋째, 실현적 케어(은사/경력개발)는 선교인력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발전/계발을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사들은 주로 제한지역이나 외진 곳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현지사역을 위해 쏟아 붓는 반면, 영적이나 지적, 정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만일 선교사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영적으로 고갈된 자원들을 충전하지 못할 때,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와 더불어 침체에 빠지기 쉽다.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18)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www.kwma.org)와 한국위기관리재단(www.kcms.or.kr)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하트스트림 한국센터, 터닝 포인트 MCC 세 단체는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위촉한 위기관리 디브리핑 전문단체이다.

맞이하여 본국에 돌아와서 세미나나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배움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적합하지 않은 경쟁적인 학위추구와 세미나 참석 등은 선교단체나 파송교회와의 갈등을 낳기도 하는데, 학위과정을 위해 선교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교단체와 파송교회의 실현적 케어는 선교사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적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의 은사와 적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선교사의 삶의 주기에서 발달되어야 할 분야들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 예로, SIL은 언어학과 성경번역 분야에서 선교사들의 발전을 위해 배움의 장을 마련해 준다. 성경번역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워크숍에 참여하고 컨설턴트와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인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으므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선교단체는 선교사들의 영적, 지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과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선교사 멤버케어의 “필수 과정”(due process)인 선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나 함정들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도 포함된다. 또한 실현적 케어는 선교단체의 조직문화와 팀빌딩, 그리고 스텝들의 케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넷째, 한국문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한국선교사들에게 관계적 케어는 매우 민감하며 중요한 분야이다. 선교사의 소명은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돌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성과위주의 사역 형태는 본질적인 공동체의 사귀를 파괴하는 역기능적 요소들이다. 관계의 상실은 거저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공허한 영성을 만들어 낸다. 한국선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관계의 갈등은 문화적인

면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지만, 성경적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통한 성장위주의 정책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본적 공동체인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확장하려는 역설적인 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공동체를 역행하는 시도들은 선교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선교사 훈련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리서치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해소”에 관한 것이었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다.¹⁹⁾ 하트스트림이 공동체 중심의 집중케어 모델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선교사의 가정(부부와 자녀관계)과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공동체 케어를 통해 선교사들은 의사소통의 방법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며, 소통의 부재와 공감과 경청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높은 스트레스와 소외감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하트스트림의 공동체 중심의 집중케어 프로그램과 쉼과 회복 프로그램(refresh program)은 1-2주 동안 예배와 찬양, 강의와 상담, 디브리핑,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식탁교제, 놀이 등을 통해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만든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현지의 선교사들과 재입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²⁰⁾

다섯째, 감정적 케어는 관계적 케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인간은 감정적 필요들을 채워야 하며, 그 필요들은 건강한 방법으로 충족될

19) Hyung Keun Choi, "Preparing Korean Missionaries for Cross-Cultur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ilmore, Kentucky), 2000 참조

20) 이 두 프로그램의 중심은 영적(예배, 찬양, 기도, 영적침체, 영적전쟁 등의 강의), 신체적(예방의학 강의, 의료상담 및 치료, 운동 등), 실현적(강의와 교육, 경력과 사역, 적성관련 상담), 관계적(스토리텔링, 식탁교제, 놀이), 감정적(디브리핑과 상담-개인, 부부, MK, 집단 대상) 케어를 모두 포함하여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상황에 따라 1주에서 3주에 걸쳐 진행된다.

때, 건강한 가정과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교현장은 영적 전쟁터인 동시에 높은 스트레스 지수로 인해 정서와 감정을 매마르게 하며 탈진에 이르게 만드는 곳이다. 감정적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은 기름 탱크와 같다. 대부분의 탈진은 장기간의 감정적인 소진으로 인해 일어난다. 특히 선교지에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경우 현지에서의 감정적 소진과 관계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독신 여성 선교사의 경우에도 그 특성상 감정적 탈진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 필요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기 위해서도 건강한 가족들과 소그룹들과 같은 선교현지의 공동체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역의 선교사회나 선교 팀은 그 자체로 케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적 케어의 문제는 심리학적이며 정신적인 측면들과 연관되며 인간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²¹⁾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케어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조직적 케어(systematic care) 분야에 속한다. 확고한 시스템 없이 선교인력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인력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선교단체의 정서, 철학, 리더십 스타일, 문화와 정책적 특성들이 멤버케어에 부합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문화적응과 마찬가지로 조직문화의 적응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실제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조직의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21) 이 분야에 대해서는 Lois Dodds & Laura Mae Gardner,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Vol. 1) (Liverpool, PA: Heartstream Resources, 2010)을 참조하라. 이 책에서 저자들은 원 가족, 자아와 정체성, 심리사회적, 감정적, 영적, 도덕적, 문화적 발달과 이 발달적 차원들의 통합을 선교사 멤버케어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돌봄과 건강”이며,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선교사역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상의 멤버케어의 요소들은 예방적(prevention), 현장 개입적(intervention), 위기 대응적(crisis management)이라는 3단계의 상황에서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서 실행된다. 첫째, 멤버케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다.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케어이다. 따라서 파송 전에 이루어지는 선교사 선발과 선별,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교인력에 대한 케어를 위한 최적의 기간이다.²²⁾ 만일 훈련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선교사 후보생들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은사적 차원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구성된다면, 파송 전 선교사 훈련 자체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멤버케어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선교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개입하기 전에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멤버케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ReMAP II 리서치는 대다수의 멤버케어 자원들이 예방적인 차원의 케어보다는 위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습을 위해 투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는 멤버케어가 여전히 상처 난 선교사들을 위한 응급서비스에 주로 치중되며, 예방적인 차원의 멤버케어는 매우 더디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³⁾ 이러한 실례는 한국교회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그 실례로, 2007년에 일어났던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 팀 피랍사건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위기대응과 멤버케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건 발행 이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무리되었다. 현장에서의 멤버케어(on-field

22) 변진석, “멤버케어 관점에서 본 선교훈련,” 「선교연구」 62호, 2009.

23) Roy Hay et al, *Worth Keeping: Global perspective on Best Practice in Missionary Retention*, 183.

member care)는 선교현지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상호 케어(mutual care) 혹은 동료 케어(peer care)의 차원이다. 그러나 한국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자기케어나 상호케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멤버케어 전문가들이 선교현장을 방문하여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 2010년 7월과 201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의 요청으로 파푸아뉴기니 성경번역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개입(intervention)이나 위기관리 및 대응(crisis management/intervention) 차원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성경번역 선교회의 멤버케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방적인 차원의 멤버케어는 선교인력들의 발달과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선교인력들은 대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삶과 사역의 스트레스 지수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의 케어의 목표는 선교인력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적, 신체적, 관계적, 감정적 강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개입 차원의 멤버케어는 문제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진단하며 그 뿌리들을 찾아내어 문제가 발행한 과정을 돌이켜 보며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입은 주로 강의, 디브리핑과 상담, 처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설문지나 테스트 등을 통해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격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입은 파송 전 훈련 중에도 종종 일어난다. 타문화 선교사 훈련도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표출되어 개입수준의 케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개 개입은 선교현장에서 직면하는 질병, 갈등, 스트레스, 우울증, 탈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의미한다. 선교현장에서의 개입이 현장 선교부 책임자나 동료들 혹은 멤버케어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비밀보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으

로 인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당사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디브리핑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무시되면, 만성적인 질병이나 우울증, 혹은 심화된 관계갈등으로 인해 다른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고 선교부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셋째, 위기대응/관리 차원은 선교현장에서 폭력, 납치, 강간, 테러, 죽음, 심각한 질병, 등 삶에 위협을 가하는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사회적 위기로 인해 유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케어이다. 위기에 취약한 집단들은 대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소박한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다. 위기관리와 대응은 대개 파송 전 훈련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위기관리에 대한 디브리핑²⁴⁾이 선행되며,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위기관리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위기 사건이 일어날 때, 위기관리 팀의 즉각적인 가동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들과 동료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위기관리 정책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서 대정부 채널과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²⁵⁾ 이러한 멤버케어의 요소들과 단계들은 파송 전, 선교현장, 재입국, 그리고 은퇴하

24) 디브리핑은 사역을 종료한 후, 혹은 사건 발생 이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위기관리 디브리핑(Critical Incident Debriefing, CID)의 목적은 처참한 경험을 한 후에 당사자와 가족과 동료들이 신속하게 회복하게 도와주고 후유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입국하는 모든 선교인력들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상 디브리핑(Operational Debriefing)과 개인적인 디브리핑(Personal Debriefing)과 함께 멤버케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Cf. 데비 로벨 하커, “위기와 정기 디브리핑을 위한 안내지침,”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847-882.

25) Lois Dodds & Laura Mae Gardner,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Vol. 2), 246-252.

고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선교인력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VI. 선교사 멤버케어의 협력모델: 지역교회, 선교단체, 멤버케어 전문기관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이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무엇인가? 대개 그들은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의도적인 케어가 필요 없거나 물질을 통해 후원하거나 기도편지나 선물을 통한 격려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면, 안식관을 마련해 준다거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교회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선교단체들의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근자에 들어와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많은 위기상황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케어 담당자(member care coordinator)를 세우고 시스템과 재정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멤버케어 담당자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의 경험과 함께 균형 잡힌 인격과 영성의 소유자로서 소통과 경청의 능력을 구비하고 기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²⁶⁾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선교단체마다 멤버케어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세워 선교인력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지만, 전문적인 인력양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선교단체들은 대개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선교사들 가운데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선교사들을 활용하지만,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부재와 열악한 재정

26) 로라 매 가드너,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18-21.

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쉽게 지친다. 또한 적절한 멤버케어 담당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들(디브리핑, 위기관리 세미나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멤버케어 담당자의 특성상 사역의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장기사역이 요구되지만, 그들의 사역은 단기간에 머물고 있으며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멤버케어 전문가 양성은 한국교회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멤버케어 기관들의 설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전문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분야에서 선교사 훈련과 멤버케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 도입도 필요한 분야이다.²⁷⁾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지역교회들은 멤버케어를 위한 훌륭한 시설과 재정적, 인적자원들(의료분야, 상담분야, 음악분야, 자원봉사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선교단체들은 시스템 구축과 멤버케어 담당자 양성을 통해 선교사들이 정책적으로 케어의 흐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전문 멤버케어 기관은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통해 선교인력들을 전인적으로 돌보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교회의 선교를 건강하게 만들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필자가 속한 한국 하트스트림은 지역교회들과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멤버케어 담당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멤버케어 세미나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멤버케어에 관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여러 교파 및 초교파 선교단체들에게 멤버케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숙지시키고 있다. 이 외에 하트스트림 한국센터에서는 선교사들의 개인 디브리핑과

27) 현재 선교사 멤버케어 분야의 학위과정은 미국의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와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개설되어 있다.

그룹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선교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재입국 선교사들의 의무적인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²⁸⁾ 또한 전문 멤버케어 기관으로서 하트스트림은 멤버케어에 관한 문서번역과 프로그램 개발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하트스트림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멤버케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어떤 한 인물이나 교회나 단체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들의 연합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인력들의 멤버케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각 파송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인식전환을 통한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적인 멤버케어 시스템은 전문적인 케어기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교사 멤버케어는 글로벌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산재한 멤버케어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I. 나가는 글

요즘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화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마음치유,” 즉 힐링(healing)이다. 대다수의 대선주자들이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하기 위해 안간힘을

28) 안식년 혹은 본국사역을 위해 재입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에 대해서는 Neal Pirolo, *The Reentry Team: Caring for Your Returning Missionaries* (San Diego, CA: Emmaus Road International 2000)를 참고하라.

쓰고 있고, 안철수 신드롬의 확산도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선후보들도 이 이야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간적, 정서적으로 호소하여 다가서려 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케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도 동일한 이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란 용어는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멤버케어를 선교인력의 건강과 발전과 양육을 위해 전 삶의 주기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교사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야로서 인식하므로, 선교사들을 상처를 안고 있으며, 정신적, 심리적, 관계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해함으로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멤버케어의 철학이나 본래적 의도와 상당히 벗어난 견해들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의 삶과 선교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인 건물, 프로그램, 프로젝트, 크기, 숫자에 그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침체와 소외,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탈진과 질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한 필요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교단체와 몇몇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인력들이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물들보다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멤버케어 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멤버케어를 위한 재정투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과 선교학 분야로의 도입 등과 같은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선교학의 존재이유는 하나님

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온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집의 “살림”이며 “회복”이고 “치유”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 멤버케어가 추구하는 핵심이라고 확신한다.

[주제어]

선교사 멤버케어, SPARE Yourself 모델, 예방적 케어,
현장개입적 케어, 위기관리적 케어
Missionary Member Care, SPARE Yourself Model, Preventive
Care, Intervention, Crisis Management

■ *Abstract*

A Study of Missionary Member Care

Choi, Hyung Keu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elineate the definitions of missionary member care and its needs to the Korean churches, suggest its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factors of missionary member care and the Heartstream model, and a cooperative system of missionary member care.

Member care can be defined as consistent and systematic supports of sending agencies, sending churches, local ministers to the all mission personnels who are missionary, MK, mission administrators and other participators for their well-being, development, and nurturing. Member care deals with the lifelong issues of mission personnels such as selection, training, ministry, reentry, retirement. It's ultimate goal is for the glory of God. The best practice of member care is possibly achieved when self care and mutual care of the member are well balanced to the accountable, systematic and strategic care of the mission organizations and sending churches. Though member care is sustained by well organized care system and programs,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of member care is God's care and mutual love and care of the member.

The urgent need for member care has been suggested by a serious issue of missionary attrition. Researches on missionary attrition(ReMap I and II)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rate

of missionary attrition and poor member care.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Korean churches and mission agencies have emphasized on sending and visible outcome of mission work without an appropriate care of the mission personnels they sent.

In this article the Heartstream's community-centered intensive care model(SPARE Yourself) is suggested for Korean mission personnels. It consists of 5 dimensions or streams of member care from an holistic perspective: spiritual care, physical care, actualization, relational care, and emotional care. In order to integrate these five dimensions, sustainable and well-functioned member care system building must be needed for an effective member care practice. The member care system can be built on the participation of sending churches, mission agencies, and professional member care centers. These factors of member care are applicable to different contexts or stages that missionaries would face in mission fields. First of all member care must be carried at its best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The preventative care can be performed at best in pre-field missionary training. Secondly member care through various methods of intervention focuses on solving the problems finding out those roots and causes. Thirdly crisis management or care is carried in very urgent cases such as kidnapping, death, life threatening physical illness or psychosomatic crisis. These three dimensions of member care can be applied in pre-field, on-field, reentry, retirement setting to all mission personnels.

The urgent need for member care needs to be keenly recognized by the Korean church and mission agencies. The mission of God begins from the God's heart and He cares for His people and church. This is core of member care.

참고문헌

- 데이비 로벨 허커. “위기와 정기 디브리핑을 위한 안내지침”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 데이비드 폴락. “멤버케어의 흐름과 케어 제공자의 개발” 켈리 오도넬 편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 로라 매 가드너.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연구」 제62호, 2009.
- 문상철 편. “한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동향과 과제.” 『한국선교핸드북 2007-2008 CD』.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07.
- 변진석. “멤버케어 관점에서 본 선교훈련.” 「선교연구」 62호, 2009.
- 빌름, 브라암 & 마리나 프린스 『선교사와 사역자를 위한 멤버케어』, 이순임 역,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2010.
- 켈리 오도넬, “세상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켈리 오도넬. 『선교사 멤버케어』. 최형근 외 역. 서울: CLC, 2004.
- 최형근. “선교사 멤버케어 시스템 구축.” 「선교와 신학」 제28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1.
- Choi, Hyung Keun' “Preparing Korean Missionaries for Cross-Cultur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ilmore, Kentucky), 2000.
- Dodds, Lois A. & Larry Dodds. *Caring for People in Missions: Optimal Care for the Long Haul*. Paper Presented at IFMA/EFM Personnel Conference, FL, Dec 4-6, 1997.
- . “Intensive Care Community: Moving Beyond Surviving to Thriving.”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John R. Powell and Joyce M. Bowers eds. Palmer Lake. CO: Missional Training International, 2002.
- Dodds, Lois & Laura Mae Gardner.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Vol. 1) Liverpool, PA: Heartstream Resources, 2010.
- . *Global Servants: Cross-Cultural Humanitarian Heroes*(Vol. 2). Liverpool, PA: Heartstream Resources, 2011.

Gardner, Laura Mae. "Missionary Care and Counseling: A Brief History and Challenge."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John R. Power and Joyce M. Bowers eds. Palmer Lake, CO: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2002.

Hay, Roy et al. *Worth Keeping: Global Perspective on Best Practice in Missionary Reten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7.

Pirola, Neal. *The Reentry Team: Caring for Your Returning Missionaries*. San Diego, CA: Emmaus Road International 2000.

<http://hsrkkorea.or.kr>

www.kwma.org

www.kcms.or.kr

* 논문투고일: 2012. 9. 27 논문심사일: 2012. 11. 8 게재확정일: 2012. 11. 9